

WCC 반대의 허구성을 해부한다 (시리즈)

'WCC=공산주의?' 발원지는 어디인가(上)

[2896호] 2013년 04월 19일 (금) 13:52:53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WCC 반대의 허구성을 해부한다" ①

1940년대 말 짜여진 극우 신학자의 '반WCC론' 지금까지 이어져
냉전상황에 있는 한국교회 안에 WCC 대한 흑색선전 일삼아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들어진 역사는 WCC의 출범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WCC는 초창기부터 용공으로 호도됐던 아프고도 지루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WCC가 창립됐던 1948년은 세계 2차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들불처럼 번질 때이고, 자유진영과의 첨예한 갈등으로 냉전이 시작되던 때였다. 한반도만 하더라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며, 9월 9일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깃을 올리면서 분단이 고착화 된다. 1950년 2월에는 미국 공화당 상원위원인 J.R. 매카시가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발 매카시즘이 전 세계를 뒤덮기에 이른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창립된 WCC도 필연적으로 이념논쟁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된다. 1차 총회 때부터 동방정교회의 고대 4개 총주교구인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교회가 참석했고, 그리스정교회와 미국 정교회, 서부 유럽에 있는 러시아 총주교 대리교구가 참석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조자신(趙紫宸, T. C. Chao)이 이끄는 장로교와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대표들을 파견한다.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1948년 암스테르담에 왔던 조자신은 1950년 7월 9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WCC 중앙위원회에서 한국전쟁을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유엔의 경찰행동을 지지했던 '한국상황과 세계질서에 대한 성명'(Statement on the Korean Situation and World Order)에 불만을 제기하고 WCC 중앙위원을 사임한 인물이기도 하다. WCC 내부에서조차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교회 간에 갈등이 컸던 것이 바로 초창기 WCC의 모습이었다. 결국 이 같은 극심한 이념갈등 속에 출범한 WCC가 이후로 지금까지 안팎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일면 필연적인 일로 이해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인위적인 외부요인이 추가되면서 WCC를 둘러싼 오해와 일방적인 비난이 증폭

된다. 평생을 WCC 반대에 헌신했던 칼 매킨타이어(Carl McIntyre)의 등장이 그것이다. 극우 반공주의자이자 근본주의 신학자인 그는 WCC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창립 총회를 가진다는 소식을 듣고 추종자들을 규합해 재빨리 암스테르담으로 날아가 국제기독교협의회(ICC,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를 설립한다. 특히 칼 매킨타이어는 한국교회 분열사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서울장신대 정병준 교수는 "칼 매킨타이어는 한국교회에 근본주의 신학을 확장시켰고 재정지원을 통해 장로교 분열과 침례교 분열, 성결교 분열에 개입했고 교회 분리주의자들을 양산했다"면서, "냉전 상황에 있는 한국교회 안에 WCC에 대한 흑색선전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분열사 뿐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WCC에 대한 오해를 확산시킨 장본인 또한 칼 매킨타이어였다. 당시 칼 매킨타이어는 WCC와 ICC의 차이점을 비교한 소책자를 발행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반WCC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매킨타이어는 WCC가 "궁극적으로 로마 가톨릭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하나의 에큐메니칼 교회를 세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WCC가 슈퍼처치를 지향한다'는 오해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임원회와 중앙위원회 안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공산당에 가입한) 성직자와 비밀 경찰이 끼여 있고 △세계 사회주의를 적극적인 사회질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부와 국제기구에 압력을 행사하고 UN에 로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처럼 '반WCC 이론'은 1940년대 말에 짜여진 '칼 매킨타이어 주장'이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를 유지한 채 이어져 오고 있는 셈이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구식 주장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장신대 박경수 교수(역사신학)는 "교회는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도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며, 그 나라의 국민들도 분명 영혼구원의 대상들인 만큼 WCC 회원 중에 공산주의 국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게 이상할 것이 없다"면서, "1950년대를 뒤흔들던 메카시즘과 흐름을 같이 하는 칼 매킨타이어의 한물간 주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못박았다.

"WCC 반대의 허구성을 해부한다" ② WCC=공산주의? 발원지는 어디인가(下)

[2897호] 2013년 04월 26일 (금) 10:32:15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WCC 반대의 허구성을 해부한다" ②

1950년 WCC, 북한의 남침 규탄 성명 발표
그러나 당시 정부, 진실 여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용공' 낙인
에반스톤 총회 참석하려던 '한경직 목사 여권 미발급' 일화 유명



▲ 한국교회 대표인 한경직목사가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열린 WCC 제2차 에반스톤 총회(1954년 미국).

세계교회협의회(WCC)를 둘러싼 용공 논란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지루한 꼬리표다. 1951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년이 지난 즈음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장의 성명서가 발표된다. 국회의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된 당시 성명서는 WCC가 용공단체이고 그 회원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도 용공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목사하면서 2대 국회의원이었던 이규갑은 '기독교와 용공정책'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해 정계와 교계에 배포했다. 훗날 대한기독교반공위원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기독교를 배경으로 반공운동에 투신했던 이규갑은 당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한국 기독교 각파와 각 단체가 한국기독교연합회를 조직해 용공정책을 주장하는 세계기독교연합회(WCC)와 동아시아대회에 가맹연결된 것과 공산정책을 예찬하는, 또는 관장하고 있는 세계기독교연합회로부터 구제금품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동 단체와 자매관계를 가진 국제선교회(IMC)의 원조 받는 일도 진중한 사고를 경요(敬要)하와..."

결국 이규갑은 WCC와 현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의 전신이 되는 동아시아대회(EACC)까지 용공으로 매도하는 놀라운 주장을 펼쳤고, 국제선교협의회(IMC)가 보내는 원조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연합회(NCC, 당시 총무:유호준)는 신속히 입장을 발표했다. NCC 대변인은 "소책자를 보면 미국 내에서 WCC와 IMC와 대립해 싸우고 있는 ICC에 소속한 모파의 모략에 의한 선전인 것 같다. 그나마도 미국 내의 어떤 잡지에 발표된 편파적인 문서를 재료로 미국 내 극소수의 보수주의자를 제외한 전 세계 150여 교파의 연합기구인 WCC와 현재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를 위시한 각 교파 선교회의 세계적 연합체인 IMC를 일방적으로 용공정책을 주장하느니, 예찬하느니, 권장하느니 하여 용공단체로 규명하는 것은 경거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던 1951년,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WCC를 반대한 이유는 뭘

까. 이 단서는 당시 NCC의 대변인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NCC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ICCC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장신대 정병준 교수는 '세계교회협의회를 향한 비판의 근거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제하의 논문에서 한국 정부와 ICCC의 '묘한 관계'에 대해 기술한다.

"이 사건의 배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측근 교계인사들이 있었다"고 밝힌 정 교수는 "피난지 부산에서 이 대통령은 송상석 목사와 이규갑 목사 등을 불러 세계교회협의회(ICC)의 용공정책에 관한 소책자를 주면서 한국교회도 세계교회의 용공적 움직임에 주목하고 대처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이규갑은 이 소책자를 번역해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소책자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준 장본인이 바로 칼 매킨타이어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미국 선교사였던 치숨이 한국 국회의원들의 WCC 비난 성명서를 번역해 (칼 매킨타이어가 만든 잡지) 크리스찬 비콘에 게재했다. 당시 치숨은 정부 방송국에서 정기적으로 30분 간 종교방송을 했고, 칼 매킨타이어 등이 내한해 이승만과 만난 후 정부 간행물에 그들의 활동을 보도했던 친 정부 선교사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과 칼 매킨타이어 사이의 가교역할을 치숨 선교사가 했고 이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칼 매킨타이어의 주장을 여과없이 한국에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반WCC 세력과 한국 정부 사이에 밀월이 시작되기 1년 전인 1950년 7월에 이미 WCC는 '한국 상황과 세계질서에 대한 성명'을 통해 "북한군의 남침에 대처해 유엔이 한국에서 경찰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일로 WCC 안에서는 공산국가의 교회들과 자유진영의 교회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고, 급기야 당시 중국교회 대표였던 조자신은 이 성명서에 불만을 품고 WCC 중앙위원직을 사임해 버리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처럼 WCC는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상황을 예상하고서도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정작 ICCC를 위시한 미국의 일부 보수세력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WCC가 용공'이라고 매도했고 불행히도 이런 거짓선전이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전해지고 만 것이었다.

이승만 정부의 '반WCC-친ICCC' 기조는 이후에도 수 차례 드러났다. 그중에서도 '한경직 목사 여권 미발급 사건'은 유명한 일화다. 한국교회는 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열린 WCC 2차 총회 대표로 한경직 목사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김현정 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가 한 목사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않아 결국 참석을 못하게 됐다. 반면 같은 해 7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ICCC 2차 대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 여권을 신청한 고신 총회 소속 목사 4명은 무사히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WCC를 둘러싼 용공논란은 그 진실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인 낙인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역사가 흘러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모두 붕괴되면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념이 되어버린 지금까지도 WCC를 용공으로 매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WCC에 대한 용공시비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WCC 반대의 허구성을 해부한다" ③

'다양성 속의 일치' WCC가 추구하는 중요 가치 중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만이 회원 자격 갖춰
이단 차단하기 위해 까다로운 회원 가입 절차 운영
'초혼제 퍼포먼스', '바아르 문서' WCC의 공식입장 아냐

'다양성 속의 일치'는 WCC가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들 중 하나다. WCC는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말이나 구호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회원교회들의 면면만 봐도 그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WCC에는 전 세계 345개 회원교회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중에는 러시아나 쿠바, 미얀마 등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부터 전통적인 이슬람 국가들인 이집트나 이란 시리아의 교회들까지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WCC는 회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로 규정하고 있다. WCC는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교제"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같은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WCC는 이단 등이 회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우 까다로운 회원가입 절차를 운영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복음주의교회와 오순절교회, 개혁신교회와 루터교회, 성공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협의체인 WCC를 둘러싼 오래된 오해들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종교혼합주의'와 '다원주의'라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WCC를 다원주의, 혹은 혼합주의라고 비난하게 된 근거는 1961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차 총회 이후 전개된 '종교 간의 대화 프로그램'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뉴델리 총회에서는 최초로 타종교와의 대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WCC가 3차 총회를 기점으로 '종교 간 대화'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종교들 사이에 평화적인 공존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러 종교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선결과제였던 것이었다. WCC는 즉시 대화를 시작했고 1968년 스웨덴 옘살라에서 열렸던 WCC 4차 총회 때 타종교인 5명을 초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옘살라 총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대화 사이의 분명한 선을 그었다.

4차 총회 보고서를 보면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인과 대화를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헌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른 종교인에 대한 진정한 기독교적인 접근은 인간적이며, 인격적이고, 적절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결국 타종교와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면서 '종교 간 대화'가 기독교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정리하고 혹시 생길지 모를 오해를 불식했다.

이후 WCC는 지속적인 종교 간 대화모임을 갖고 당초 목적인 종교 간 평화를 확산시키면서 동시에 이 대화가 혼합주의나 다원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간다. 1970년 레바논의 아잘톤과 1974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각각 종교인 다자간 대화가 있었다. 이듬해인 197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WCC 5차 총회에서는 종교 간 대화가 '종교간 예큐메니즘'으로 흐르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1979년에 WCC는 보다 강력하게 혼합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당시 WCC는 'Guidelines on dialogue with people of living Faiths and Ideologies'라는 문서에는 "첫째 위험은 기독교 메시지를 문화적 배경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시도이고, 타종교의 이데올로기들에 접근할 때 기독교 신앙과 삶의 진정성을 타협할 정도로까지 멀리 가는 것이다. 둘째 위험은 현존하는 종교를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지 않고 타종교나 이데올로기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문과 대화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 가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한 변종으로 보이게 됨으로 혼합주의가 될 수 있다"며 종교 간 대화를 할 때의 주의점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종교 간 대화는 늘 다원주의나 혼합주의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다. 1989년 WCC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가 산안토니오 대회에서 채택한 문서인 'Your will be done and Christ's way'

에 실린 한 문구가 논란을 야기한 적도 있었다. 당시 문서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지적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어떠한 제한을 둘 수 없다"고 기록했다. 이 문서가 발표된 뒤 특히 우리나라 복음주의자들은 일제히 '다원주의 문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유는 이랬다. 이 문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타종교의 구원을 간접적으로 열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문구보다 더 큰 일이 1991년 열린 WCC 7차 캔버라 총회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다.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당시 총회에서 강연을 한 정현경 교수(미국 유니온신학대)가 초혼제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다. 오재식 선생의 책인 '나에게 꽃으로 다가오는 현장'에는 그날의 분위기가 자세히 담겨있다. "1991년 2월 8일 총회 둘째 날 하얀 한복 차림으로 등장한 그(정현경)는 무대에 서서 신을 벗더니 총회장의 모든 참석자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한 뒤 종이를 태우는 등 그야말로 온몸으로 '초혼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총회장의 반응은 완전히 돌로 같았다. 다원주의에 관심을 둔 그룹은 잠시 멈칫하더니 곧 대단하다고 박수갈채를 보냈고, 한편에서는 '어디서 저런 무당 같은 사람을 데려왔느냐'고 날을 세웠다." 실제 당시 발제 직후 각국에서 온 정교회 대표들과 우리나라 총대들을 비롯한 각국의 많은 총대들이 자리를 떠났다.

WCC 성령론에 직격탄을 날린 정현경 교수의 초혼제는 하지만 강연자의 입장이었을 뿐 WCC가 초혼제가 담고 있는 의미를 지향한다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병준 교수(서울장신대)는 WCC의 신학적 입장을 비판할 때 △개인 신학자들의 견해를 아무런 설명없이 WCC의 입장으로 주장하지 말아야 하고 △WCC의 공식 입장인 '총회 보고서'나 '중앙위원회 보고서'에 입각해 비판해야 하며 △비판하는 내용이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지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등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 교수의 퍼포먼스나 WCC가 다원주의라고 공격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바아르(Baar) 문서는 WCC의 공식입장이 될 수 없다.

성령을 주제로 열린 WCC 캔버라 총회에서 채택한 문서 중 제4분과 보고서에서는 WCC의 성령론이 무엇인지 규정했다. "성령은 성삼위일체의 삶과 분리해서 이해될 수 없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은 그리스도시오 메시아며 세상의 구세주되시는 나사렛 예수를 가리킨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어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성취하게 하신다. 성령은 성삼위일체의 본질 그 자체로서 거룩하시다. 성령은 이 세상의 다른 영들과는 구분된다."고 증언했다.

반WCC 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WCC 공식입장이 다원주의가 아니라 해도 WCC 안에 다원주의자들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히 반WCC 운동을 펼치고 있는 모 단체의 최초 지도부가 전원 다락방 소속 교회 교인들로 구성됐다고 해서 그 단체의 구성원 전원이 다락방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다. 결국 'WCC가 다원주의, 혹은 혼합주의다'라는 비난은 한낱 비난일 뿐,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